

## I. A. D. R.(국제치과연구학회)에 다녀와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이 중 혼

이번 호주 시드니의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61차 국제 치과연구학회는 7월30일 오전 8시부터 각지부 회장단과 IADR직원들의 아침을 겸한 모임이 Melcher회장 주최로 열렸고, 오후 1시부터 각 지부의 Councillor들이 모여서 지난 1년간의 결산, 앞으로 1년간의 예산, 정관개정, 각지부 및 Research group의 보고 및 건의사항등이 토의 되었으며, 이 회의는 일요일인 31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었다.

8월 1일 9시에 Grand Ballroom에서 개최식이 시작되었는데 Melcher회장의 개최사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대표하여 Stephen경의 환영사가 있었고, 호주 뉴질랜드 지부 회장인 Brown교수의 호주의 Dental research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끝이어 Melcher회장의 각 지부의 대표와 그밖에 이번 모임에 공헌한 사람들의 소개가 있었다. 우리 한국지부는 12번째로 작년에 인준되어 이번 총회에서 소개될때는 감개무량 하였다.

앞으로 꾸준이 한국지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차기 회장 당선자인 불란서의 Frank회장의 IADR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끝이어 H. Trendley dean Memorial Award 와 7개부분에 대한 시상식이 직전 회장인 Nysten여사와 IADR 과학수상위원회 위원장인 Rovelstad에 의해서 수여되었고 Gray IADR 집행위원장의 광고와 안내를 끝으로 10시 30분에 끝나고 11시부터 강연과 포스타 발표에 들어갔다.

이 개최식에는 이정식, 조영필, 윤수한, 손성희, 최선진, 이종혼교수와 변순희, 김관현선생등이 참석하였다.

11시부터 11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Edward H. Hatton award competition이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중에 Dr. Lee는 한국인으로 서울치대

출신인 이진명씨의 자제라고 한다. 현재 코넬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고 발표논문은 The use of electron microdiffraction in the atomic structural study of enamel crystallites이다. 포스타 발표는 8월 1일에서 3일까지 매일 11~12:30 사이에 발표되었는데, 치과재료학(24연제), 치주학(21연제), 이중 8월 2일에 서울치대의 정종평교수의 Bacterial Ig G and IgM antibody titers in acute 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란 연제(공저)의 발표가 Dr. Slot가 대신하였다.

미생물·면역학(13연제), 치아우식(15연제), 약리·치료·독물학(16연제), 신경과학(3연제), 치수생물학(3연제), 안면두개 생물학(9연제), 석회화조직(15연제), 타액선(4연제), 보철학(10연제) 및 Oral behavior(5연제)등의 발표가 있었다. 심포지움은 6개 Group 발표가 있었는데 (1)은 Enamel surface란 제목으로 Surface enamel의 ultrastructure, protein adsorption to dental enamel, trace elements, demineralization and remineralization of dental enamel, remineralization 및 effect of adsorbed protein on hydroxyapatite dissolution and Bacterial Adherence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심포지움(2)는 Psychophysiological aspect of pain and its control로서 근육성으로 오는 악안면동통의 말초인자와 성격에 관한 것, 악안면 동통의 뇌간의 기전, 악안면 동통과 정신질환, 악안면 동통과 환자의 행위 및 악안면 동통 연구에 대한 장래의 방향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심포지움(3)은 properties and performance of modern, aesthetic, adhesive restorative materials란 제목으로 치아경조직에 컴포지트의 adhesive bonding에 관한것, 치경부 결손부의 adhesive materials에 대한 임상적 실험, polyelectrolyte씨멘트의 화학적 조성과 구조, 컴포지트의 표면 파절과 실험

실에서의 사용에 관한 연구, posterior composite resin의 사용 형태, dental composite resins의 실험 관내에서의 사용 성질과 fracture toughness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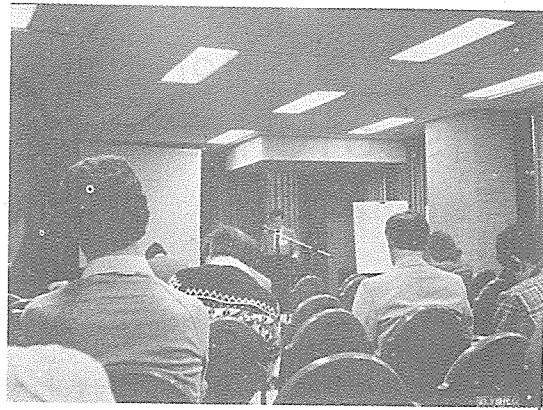
심포지움(4)는 oral mucosa carcinogenesis에 관한 제목으로 실험적 구강점막의 carcinogenesis에 관한 역사적 고찰, oral carcinogenesis의 biological aspect, murine experimental oral carcinogenesis의 조직학적 관찰, oral leukoplakia의 예후에 있어서 상피성 세포막의 변화, 구강암과 Herpes simplex virus간의 관계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심포지움(5)는 dental research and research needs in the Asian-Pacific region란 제목으로 appropriate technology and delivery systems for oral care,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손성희 교수의 current research activiti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강연이 있었고, epidermiology of oral diseas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needs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dentistry in China등의 발표가 있었다.

심포지움(6)은 prevention and control of periodontal disease at the community level이란 제목으로 the scientific basis of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evaluation of the success of clinical trials and community programs, prevention and periodontal disease problem(Asian-Pacific Australian region)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일반연제로는 치과재료학 분야가 단연 톱을 차지하고 내용을 보면 아말감, 매식, 컴포지트, 세멘트, 본딩, microleakage, casting alloys 및 ceramics로 총 46연제가 발표되었고, craniofacial biology가 development and cell biology, dental development, animal physiology 및 oral physiology등으로 30연제, microbiology/immunology가 actinomyces, periodontal organisms, plaque, streptococci 등으로 26연제가 발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최선진 교수의 streptococcus mutans and caries experience in 10~11 year-old Korean children에 관한 연구(공저) 발표가 있었다.

Periodontal research는 bacteria and the host response, mechanism of periodontal destruction등으로 20연제, experimental pathology가 general 및 epithelial connective tissue에 관하여 19연제, mineralized tissue가 general, mineral study, biochemistry 및 physiology로 19연제, pharmacology, the-



〈제61차 IADR학회 석상에서 서울대 齒大 崔宜鎭교수가 Streptococcus mutans and caries experience in 10~11 year-old Korean children에 대한 演題를 發表하고 있다.〉

rapeutics, toxicology가 clinical pharmacology 및 drug action등으로 18연제, cariology가 general, enamel lesions 및 fluoride로 18연제, neuroscience가 clinical and laboratory studies로 11연제, Prosthetic research가 RPD implant로 10연제, behavioral science가 9연제,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가 bone and soft tissue repair로 9연제인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종훈 교수의 changes on cyclic nucleotides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during healing of extraction wound(공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Salivary research는 saliva and salivary glands 8연제, pulp biology로 7연제가 발표되었다.

IADR총회에 앞서 7월28~30일까지 Hilton Hotel에서 제9차 국제구강생물화학회가 미생물·면역학에 초점을 맞춰서 개최되었으며, 8월 4~5일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국제 치아 및 골흡수에 관한 발표회가 열렸고, 8월 5~6일에는 시드니대학교에서 neuroscience group이 동통 기전과 근신경 부전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제61차 IADR총회를 결산하여 보면 치과재료학, 치주질환, 두개안면생물학, 미생물·면역학 등에 관한 논문 발표가 많았고, 6개의 심포지움은 유효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학회에 발표된 총연제는 410개로 일반연제가 250, 포스타 발표가 128, 심포지움 연제가 32명 등이었다.

끝으로 IADR총회 개최지가 1993년까지는 이미 Councillor 모임에서 결정되었는데 서울에서의 개최는 불가능한 것일까?